

남도장터 추석 선물세트, 가격·실용성 다 담았다



울 추석 210개 입점업체 참여
1000개 넘는 농·축·수산물 판매
기획전 최대 50% 할인 혜택

2022년 말 법인으로 출범 뒤
3년 연속 최고 브랜드 대상 수상
믿고 찾는 공공 플랫폼으로 성장
8월 기준 울 매출 309억원 기록
소상공인·영세기업 판로 제공
노인 일자리 생산품 전용관 운영
취약층 식생활 지원 공익 역할도



남도장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표적 지역 공공형 유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에게는 전남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전남 농어민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판로 확보에도 힘써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을 쏟고 있다.

◇최대 50% 할인...생산지, 소비자 모두 만족
-남도장터는 전남도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전남의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이다. 특히 울 추석에는 210개 입점업체가 참여해 무려 1000개가 넘는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실속형 제수·구이용 친환경 꾸러미 선물 세트도 올해 처음 출시,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명절 기간,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기획 할인전을 통해 남도장터 이용객들에게는 소비자 1인당 최대 2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기관 고객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20개 이상 대량 구매 시 첫 거래에는 10% 할인, 설 명절 구매한 기관이 재구매 시 추가 5% 할인을 적용해 기업·단체 고객의 선물 구입 부담을 경감시켰다. 주요 품목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한우, 전통 한과, 굴비·김·건어물·과일 등 명절 인기 선물세트 구성하는 등 합리적 가격에 실용성도 갖췄다.

남도장터 관계자는 "남도장터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형 종합유통플랫폼인 만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남도장터는 지난 2022년 말 법인으로 출범한 뒤 3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가 하면, '2024년 우체국 쇼핑 연도대전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2024년 G마켓 상생 페스티벌 신규판매자 최우수상' 수상, '2025년 뉴욕 페스티벌 쇼핑몰 브랜드부문 대한민국 대상' 수상 등 국내 최고의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매출도 8월말 기준 309억원을 기록,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13% 올랐다. 농산물



남도장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로컬 상품 품질 향상 및 입점업체 품질 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남도장터 제공>

(164억), 수산물(69억), 가공식품(53억), 축산물(23억) 등 전 품목에서 고른 매출 성장세를 보였고 자사몰 매출도 101억원을 기록해 49%나 증가했다.

회원도 수도권(31%)과 광주·전남(24%)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4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객 확보 기반을 갖췄다.

남도장터는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고객 중심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불량 상품, 허위 송장, 발주 불이행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추석 기획전을 앞둔 지난달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을 통해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CS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약을 체결해 스마트 HACCP 구축과 입점업체 정기 교육, 품질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대표 공익형 유통플랫폼으로 우뚝-남도장터는 전국 지자체 대표 공공쇼핑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품질과 안전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체계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거나 해양수산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전국 지자체를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한 것도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능했다는 게 남도장터 측 설명이다.

남도장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선정 기념 이벤트로, 기획관을 마련한 데 이어, 기본 자체 할인율을 20%로 상향하고 여기에 국비 20% 할인이 추가로 가능하도록 적용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전남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설·봄맞이 행사나 수산인의 날 등 11차례 기획전을 통해 전복 30t 이상을 판매해 가격 하락과 고수는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어민들을 돕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115개 사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라이브커머스나 대형 유통망의 MD 초청 구매상담회 등을 통한 판촉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

회적 경제 상품 판매 확대에도 공을 쏟아 올해 상반기에만 2억 5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노인 일자리 생산품 전용관도 운영중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 저매출 업체 74개사의 판매를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23억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10억원) 등도 추진했다.

올해 말부터는 일부 시·군과 쇼핑몰 시스템을 연동해 공동마케팅에 나서는 한편, 22개 시·군, 유관 기관과 연계한 상생 기획전도 연다.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돼 지역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됐다.

남도장터 김경호 대표이사는 "단기적 매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온라인 쇼핑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기아 신차 '더 기아 PV5'에 타이어 공급

SUV·픽업트럭 전기차 특화 제품

금호타이어는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전용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인 '더 기아 PV5(PV5)'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PV5는 기아의 첫 PBV 모델로 저상 플로어,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해 휠체어 접근 차량, 차박용 차량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PV5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크루젠 EV HP71'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인 '크루젠'의 명맥을 잇는 SUV·픽업트럭 전기차 특화 제품으로 한국·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차량에 공급되고 있다.

크루젠 EV HP71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주행·마모 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전기차에서 요구하는 낮은 회전저항, 고하중 지지, 저소음, 고출력에 따른 순간 반응속도에 대응 가능한 성능을 확보했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 전무는 "PBV 시장은 자동차의 개념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목적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설계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



더 기아 PV5.

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PV5 외에도 타스만, EV3, EV

4, EV5, EV6, EV9 등 기아 브랜드 주요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아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타이어 성능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소비쿠폰 66% 음식점·마트·편의점서 끊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분 88% 사용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3분의 2는 음식점, 마트·식료품,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 지급분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운데 88%는 사용이 완료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지급분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6조177억원 가운데 5조2991억원(88.1%)이 사용됐다.

업종별 사용액은 음식점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료·잡화(3.6%) 순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소비 심리 개선 등 경제적 효과도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행안부는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했고, 8

월에는 111.4로 올라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BSI는 각각 72.3, 75.6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9월 전망치도 소상공인 88.3, 전통시장 85.5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가 "쿠폰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은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다고 응답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고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가치 소비가 더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만 전자' 회복한 삼성전자...증권가, 목표주가 잇달아 올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

삼성전자 주가가 18일 장중 1년 1개월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SK증권은 7만7000원에서 11만원으로, 하나증권은 8만4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NH투자증권은 8만4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은 8만8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BNK투자증권은 8만7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러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것이다.

김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며 "매출액은 87조8000억원, 영업이익

은 10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건·김제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제한된 공급 여파로 2026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며 "AI(인공지능)용 수요에 비해 불투명한 IT(정보기술) 세트항 범용 메모리 수요 불확실성은 공급사의 제한된 Capa(생산 능력) 증설을 유도했다"고 짚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461.30 (+47.90)
↑ 코스닥	857.11 (+11.58)
↓ 금리(국고채 3년)	2.403 (-0.015)
↑ 환율(US D)	1386.45 (+6.35)

(오후 5시 19분 기준)

국내 미등록 美특허 과세권

33년만에 확보...세수효과 수십조

국세청이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소송에만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호재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전 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쟁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 첫 과세당국 패소 판결 이후 33년 만에 비로소 미국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국세청의 추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면 미국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삼성, 향후 5년간 6만명 채용한다

반도체부품·바이오·AI분야 집중

채용연계 인턴·기술인재 채용 병행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채제도를 유지하

고 있다. 삼성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규모를 대폭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을 통해 검증된 우수인력은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의 첫 만남 자리에서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